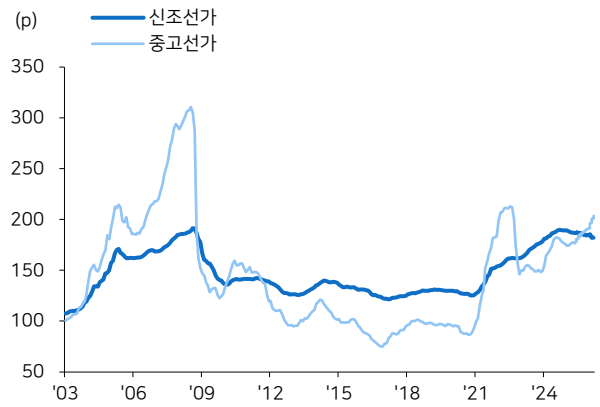
2026. 4. 2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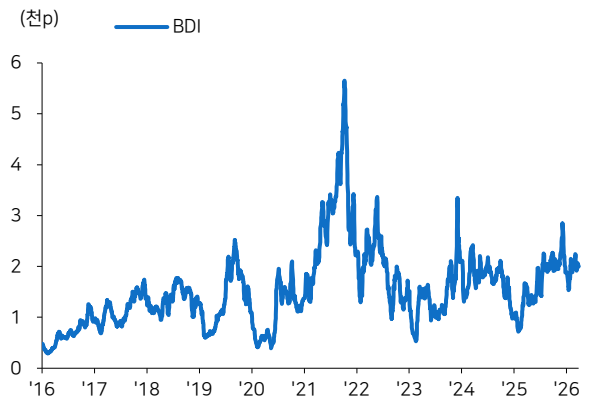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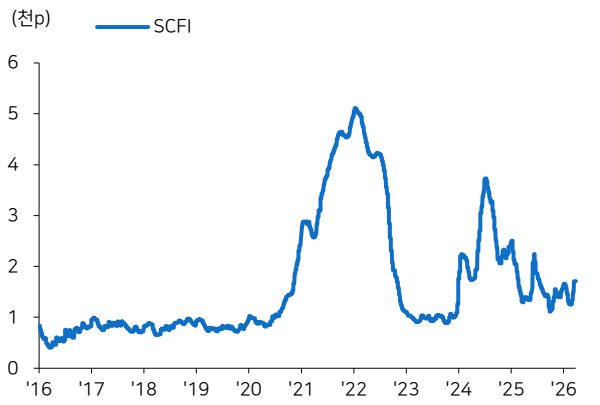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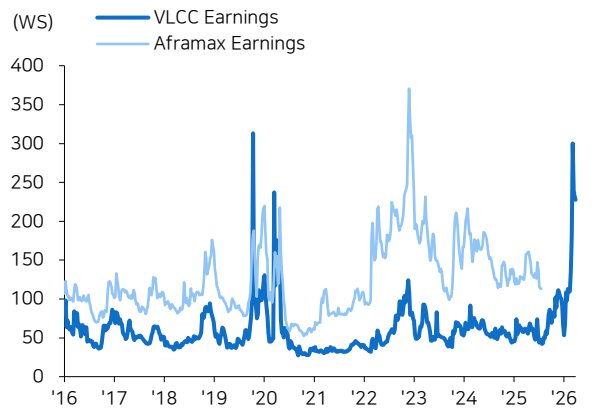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95.0p (-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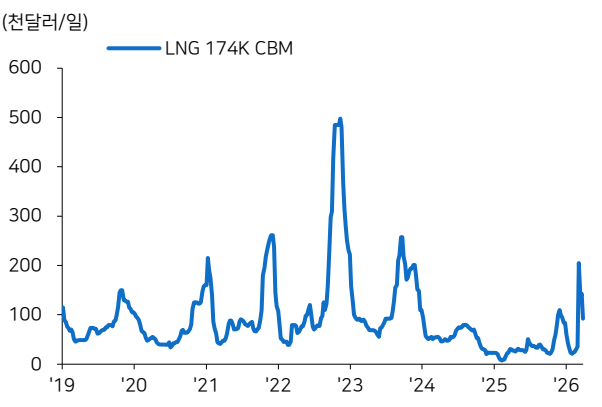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26.8p (+120.3p WoW)



VLCC Spot Rate 227.5WS (-4.1p WoW)



LNG Spot 운임 92.5천달러 (-5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War and profit pressure see ONE chop back newbuilding plan (TradeWinds) https://zrr.kr/lFLMe7

Ocean Network Express(ONE)가 당초 계획했던 22척 규모의 신조 발주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6척의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조선업계에 따르면 ONE은 HD현대중공업을 낙점하여 2029년 하반기 인도 예정인 15,0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선 6척을 건조하기로 했으며, 이는 중동 분쟁 지속과 저조한 3분기 실적 등을 고려한 보수적인 결정으로 분석됨. ONE은 이번 발주를 통해 용선 중인 선박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선복량 공급 과잉 및 운임 하락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규모를 줄였다고 전해짐.

JP Morgan linked to VLGC newbuilding duo at Samsung Heavy Industries (TradeWinds) https://zrr.kr/L2GCp8

삼성중공업이 1일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약 3,420억 원 규모의 VLGC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며, 그 배후로 JP Morgan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수주 선박의 척당 가격은 약 1.13억 달러로 현재 시장가인 1.1억 달러를 상회하며, 2029년 5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업계에서는 중동 분쟁 여파로 VLGC 운임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미국 LNG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른 LPG 수출 증가와 아시아향 물동량 확대를 겨냥한 투기적 발주가 이어졌다고 분석함.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제외하고도 올해 현재까지 LNG 운반선 4척을 포함해 총 12척, 24억 달러 상당의 실적을 올리며 연간 목표치인 139억 달러의 약 17%를 달성 중이라고 알려짐.

삼성중공업, 美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참여…'마스가' 본격화 (전자신문) https://zrr.kr/mshtes

삼성중공업이 미국 General Dynamics NASSCO, 디섹과 협력하여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프로젝트 개념 설계를 2027년 3월까지 지원한다고 보도됨. NGLS는 미 해군의 분산해양작전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향후 13척 이상의 건조가 예상되는 전략 프로젝트이며,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수조 등 독보적인 선형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형 개발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할 예정으로 전해짐. 삼성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General Dynamics NASSCO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법인 설립과 Vigor 조선소와의 MRO 입찰 준비, 함정정비협약(MSRA) 인증 취득 등을 통해 대미 함정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25 개국 무관단에 K-함정 경쟁력 공개 (ZDNetKorea) https://zrr.kr/TcYpOI

HD현대중공업이 25개국 주한 외국 무관단을 울산 본사로 초청해 함정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K-방산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함정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국방정보본부의 안보 · 방산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무관단은 건조 중인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대호김종서함과 필리핀 원해경비함, 창정비 중인 잠수함 등을 둘러보며 설계부터 유지보수(MRO)에 이르는 체계 통합 역량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짐.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각국 무관들에게 직접 자사의 역량을 알리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으며, 필리핀과 페루 등지에 총 20척의 함정을 수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짐.

'Number of weeks' to resume full production at Australian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nfNCip

미국 Chevron은 호주 서부의 연간 890만 톤 규모 Wheatstone LNG 프로젝트가 사이클론 Narelle로 인한 장비 파손으로 인해 전체 생산을 재개하기까지 수 주가 소요될 예정으로 발표했다고 보도됨. 해당 설비는 지난 2월 글로벌 LNG 거래량의 약 2.4%를 차지하며 일본과 태국 등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으나, 이번 기상 악화로 인해 육상 플랜트와 해상 플랫폼 모두에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안전한 수리를 위해 완전 가동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해짐. 반면 Barrow Island의 Gorgon LNG 프로젝트는 가동이 중단됐던 생산 라인이 지난 29일 복구되어 현재 3개 라인 모두 정상 운영 중이며, Santos의 Darwin LNG와 Woodside Energy가 운영하는 Pluto LNG 등 인근 프로젝트들도 사이클론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선적을 재개하고 있다고 알려짐.

Iranian missile hits QatarEnergy tanker in second attack in two days (TradeWinds) https://zrr.kr/6xVuJP

QatarEnergy가 용선한 유류 운반선 Aqua 1호가 수요일 새벽 카타르 북부 해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체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Ras Laffan 북쪽 약 17해리 지점에 정박 중 두 발의 발사체에 피격되었으며, 이 중 한 발이 폭발하며 발생한 미세한 화재는 선원들에 의해 즉시 진압됐다고 전해짐. 필리핀 국적 선원 23명은 모두 안전하며 해양 오염 등의 추가 피해는 없다고 확인됨. 최근 이란과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쿠웨이트 VLCC가 피격되는 등 선박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교부는 향후 해협 통행 보안 및 환경 문제를 위해 오만과 공동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